FX Market Daily

2024-07-11

전일동향

전일대비 3.10원 상승한 1,384.70원에 마감

1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3.10원 상승한 1,384.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40원 상승한 1,384.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아시아 통화 약세에 1,380원 후반까지 급등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코스피 낙폭 축소, 달러지수 하락 전환 등에 상승폭을 반납하여 1,384.70원에 종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57.9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4.00	1388.10	1383.50	1384.00	1385.60
엔화	856.21	859.05	855.33	856.34	-
유로화	1493.85	1500.66	1493.65	1499.52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1	-6.65	-14.36	-29.05
결제환율(수입)	-1.3	-5.73	-12.65	-25.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 심리에...1,38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84.70) 대비 1.00원 하락한 1,381.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파월 의장 발언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파월의장보다 다소 매파적인 ECB 인사의 발언이 파운드화 강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하락 마감했다. 휴 필 BOE 의원은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하원에 출석하여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9월 금리인하 낙관론이 확대되며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 강세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금일 환율은 미국 6월 CPI 관망세 속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을 소화하며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일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제시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은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7.67 ~ 1386.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274.9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0원↓
	■ 美 다우지수 : 39721.36, +429.39p(+1.0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3.7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9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